

지구별의 슬픔을 떠 올려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권승섭

광장은 북적였지만 언제나 외로웠다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의 미소
그의 눈동자 너머에
지구의 반대편에
거리의 적막이 있다고 믿는다.

무지갯빛 콘을 손에 쥐고
스쿱으로 퍼올린다.
달의 표면에 가득할 움푹 파인 흔적
터키 아저씨의 뒷면에는
빛이 들지 않은 채
크레이터가 생겨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의 발자국이 더 많이 남을 때까지
길의 뜨거움이 식을 때까지
나날이 부푸는 우울의 무게만큼
가득 떠 올린다

한 아이스크림 위로 뒤섞인
대륙과 바다
어딘지 모를 지점에 길쭉한 과자를 꽂아준다
사르르 뭉그러지는 낮달은
희미한 빛을 녹여내고

길은 오기만 하고 갈 수 없는 것

거짓말처럼 입안에서 녹아드는 단 꿈
저마다 슬픔 하나쯤 안고 살잖아
둥근 아이스크림을 버티는 콘처럼

달빛 아래 북적이는 거리
가게 앞으로 줄을 서는 사람들
웃음소리 뒤로
하늘의 달모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